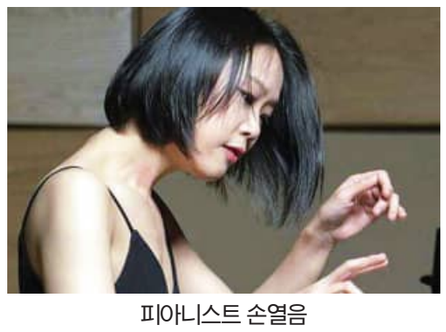
오는 16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내한 공연을 펼칠 예정인 독일 도이치방송 오케스트라.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한·독 클래식 하모니’ 광주 물들이다

도이치방송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16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피에타리 잉키넨 지휘, 손열음 협연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3번 연주

지휘자 피에타리 잉키넨



피아니스트 손열음

한·독 클래식 선율의 화려한 조우…….

정통 독일사운드를 지향하는 ‘도이치방송 오케스트라’가 5년 만에 내한 투어를 진행한다. 세계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클래식 스타 손열음도 협연할 예정이어서 클래식 애호가들의 이목을 끈다.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윤영문·전당)이 기획공연 포시즌(For Season) 네 번째 무대로 ‘도이치방송 오케스트라 with 손열음’을 오는 16일(오후 5시) 전당 대극장에서 펼친다. 도이치방송 오케스트라 소속 피에타리 잉키넨(수석지휘자 겸 예술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며, 작년 포니정 영리더상과 2011년 차이콥스키 기념 국제콩쿨 2위에 오른 손열음이 출연할 예정이다.

서막은 바그너 ‘탄호이저 서곡’이 연다. 지휘자 잉키넨의 특장인 곡인데 터져나오는 현악과 관현악의 무게 있는 사운드가 인상적이다. 이어 올해 탄생 150주년을 맞은 러시아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손열음이 협연한다. 피아니스트들에게 최고 난도 곡으로 꼽히는 작품으로, 세르게이가 1909년 미국 데뷔를 앞두고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 기교를 가미했던 사연이 담겨 있다. 1악장은 오케스트라 서주로 시작해 장엄한 분위기가 펼쳐지고, 피아노가 두 번 주제부를 연주하면서 39분간 다이내믹한 악상이 전개된다.

독일 음악의 대표격 ‘베토벤 교향곡 7번’도 들을 수 있다. 도이치방송 오케스트라와 함부르크 발레단이 매년 콜라보 해온 작품으로 5~6번 교향곡에 드러나는 ‘투쟁’과 ‘자연찬미’라는 주제와 달리 ‘리듬’ 그 자체에 주목한 작품이다.

지휘를 맡은 피에타리 잉키넨은 핀란드 출신으로 현 KBS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2015년 프라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루드비히스부르크 음악제 수석지휘자를 역임했고 저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수석 지휘자), 뉴질랜드 악단 음악감독 등을 맡아 왔다. 우아하면서도 악곡에 대한 거시적 안목을 갖고 전체 악단을 아우르는 오케스트레이션(관현악법)을 지향하면서도 정확한 곡 해석 능력이 돋보인다.

K-클래식을 선도하는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앞서 언급한 국제콩쿨 수상 외에도 무수한 국제콩쿨에서 협연경력을 쌓아왔다. 로린 마젤,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쾰른 귀체니히,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니 등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춰왔다. 지난 2018년부터 5년 간은 평창 대관령음악제 예술감독으로 일하며 행사를 리드한 경험까지 갖고 있다.

아울러 도이치방송 오케스트라는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의 후신이다. 독일 서·남부 지방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인데 스펙트럼이 넓은 공연으로 정평이 나있다. 그동안 룩셈부르크, 프랑스, 이탈리아 및 영국, 스위스 등지를 순회하며 이채로운 연주를 선보여 왔다.

R석 17만 원, S석 13만 원, C석 5만 원 등. 자세한 내용은 전당 홈페이지나 티켓링크 참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지난 4월 광주시향이 전남대에서 ‘교향악 축제’를 진행하는 장면. 〈광주일보 DB〉

드뷔시부터 이안 클라크 곡까지

광주시향 ‘실내악 시리즈 Ⅳ’ 13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관객과 연주자가 조붓한 공간(Chamber)에서 함께 호흡하는 실내악은 악곡의 섬세한 전개를 느낄 수 있어 매력적이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2023 실내악 시리즈 Ⅳ’를 오는 13일(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연다. 19세기 프랑스 음악가 드뷔시부터 헝가리 국민음악의 창시자 코다이, 베토벤과 이안 클라크 등의 곡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화려한 반주에 플루트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지는 이안 클라크 곡 ‘두 대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마야’, 드뷔시 소곡을 모은 ‘두 대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작은 모음곡’이 막을 연다.

이어 쇼커의 ‘두 대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춤곡’, 베토벤의 ‘플루트,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세레나데 D장조 25번’이 울려 퍼진다. 끝으로 ‘두 대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세레나데 12번’은 코다이의 곡인데, 음악교육가로도 알려진 그의 세레나데 곡을 들을 수 있다.

곡의 제목에서 드러나듯 무대구성은 대부분 관현악 연주자가 주를 이룬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신영은 한예종 예비학교를 수료했으며 전남대 등에서 실기강사로 출강 중이다. 서울대를 졸업한 강다영의 바이올린, 한예종 예술사를 졸업했으며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디플롬을 수석 졸업한 비올리스트 정수지도 선율을 들려준다.

이어 플루티스트 정은지도 무대에 오른다. 서울대, 영국왕립음악원(RAM), 독일하노버국립음대 졸업. 박소현은 한양대 음대 관현악과에서 수학했으며 피아니스트 문정재는 줄리아드 프리컬리지 및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에서 공부했다.

전석 1만원. 자세한 내용은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성장하는 단계 ‘소우주-연결’

은암미술관, 23일까지 청년전…나혜원·박기태 등 11명 참여

나혜원 작 ‘아동일시보호소’

인간을 규정하는 정의들은 많다. ‘생각하는 갈대’, ‘인간은 소우주’, ‘유희의 인간’, ‘노동의 인간’ 등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다.

‘인간은 소우주’라는 정의는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 외에도 특수성을 잘 드러낸 말이다. 인간은 사유를 매개로 완숙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인데 필연적으로 타자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은암미술관에서 ‘소우주-연결’을 주제로 진행되는 청년전은 사유, 이성, 본성, 욕망, 연결 등 키워드로 수렴된다. 오는 23일까지이며 나혜원, 박기태, 박인선, 박주영·최인영·신춘성, 백나원, 서지수, 정소영, 터전 126, 비 아재 샤르마 등 모두 11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사실 청춘의 시기는 완성이 아닌 성장하고 완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청년 작가들의 회화를 비롯해 사진, 조각,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매체의 실험 작품들이 선을 보인다.

나혜원 작가는 오랜 기간 외국생활 하면서 느꼈던 소통 부재의 상황을 작품으로 형상화했다. 박기태 작가는 흙으로 빚고 용접하는 지난한 과정을 매개로 시간의 흐름과 무의식 세계를 초점화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순간을 매개로 다양한 감정을 시각화한 정소영 작가, 작업을 진행하다 헤어 나오지 못했던 느낌을 표현한 백나원 작가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한편 정여섭희 학예사는 “이번 전시는 청년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방향성과 추구하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기회를 주고자 마련했다”며 “주변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함의하는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한 작품들은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밴드 ‘동양고주파’, 고정관념을 넘어서

14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

록의 한 장르인 ‘프로그레시브 록’은 1960~70년대 인기를 끈 진보적인 사운드를 의미한다.

프로그레시브 록 분야에 천착하고 있는 밴드 ‘동양고주파’〈사진〉가 오는 14일(오후 7시 30분) ‘고정관념을 넘어서 : Beyond Stereotypes’를 주제로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연다.

공연은 퍼커션과 베이스, 양금이라는 세 리듬악기의 조합을 보여준다. 젬베나 카혼 등 퍼커션 타악기들의 리듬에 양금의 독특한 선율이 어우러질 예정. 특히 양금은 현을 물리적으로 때려서 음을 내는 ‘타현악기(打絃樂器)’로 독특한 주법과 음색을 기대하게 한다.

길흉화복을 점치는 길굿 중 하나인 ‘오채질굿’을 먼저 감상할 수 있다. 2박과 3박 리듬을 혼합한 4박(10/8박자)이 주가 되는 곡으로 동양고주파가 편곡했다.

양금의 ‘임계점’은 묵직한 8비트 리듬에 모든 악기가 어우러지는 작품인데, 물질이 변화할 때 한계치인 ‘임계점’처럼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는 듯한 음악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반복되는 베이스 리프가 인상적인 ‘연무’와 인간존재의 삶과 루틴을 묘사한 ‘Cycle’, 살아가며 퇴색되는 사람의 마음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녹’도 레퍼토리에 있다. 이어 ‘Fever’, ‘숨바꼭질’, ‘Terra’를 비롯해 화려한 기악이 돋보이는 한국무속 시나위곡 ‘혼’도 울려 퍼진다.

동양고주파 팀은 “광주에서 가끔 공연해왔으나 단독공연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문화도시 빛고을의 이름에 걸맞는 레퍼토리를 준비해 좋은 공연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전석 1만원. 문의사항은 광주북구문화센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극장 ‘100년의 꿈’ 응원해 주세요

고향사랑 기부제 일환 ‘100년 프로젝트’ 진행…15억원 목표

광주극장 80주년을 기념해 그린 관객 가족도.

‘광주극장’은 1935년 개관한 이래 꿋꿋이 한 자리를 지켜왔다. 당시 조선인 사업가 최선진씨가 호남지역 유일 자본으로 설립한 극장인데, 야학을 위한 집회공간으로도 활용되며 광주지역 민중사와 함께 호흡해 왔다.

광주극장과 광주시 동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일환으로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18일 총 15억 원을 목표로 시작된 모금은 현재 1300여 만원과 70여 명 시민들의 동참을 끌어내고 있다. 모금은 마감일까지 총 110일가량 남았으나 목표치의 1%가량 모금에 불과해, 광주지역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해보인다.

역사적으로 광주극장은 일제강점기 당시 항일계몽정신을 드높이고 교육계몽운동에 이바지한 광주민중사의 보고라 할 수 있다.

현대에 와서 OTT 서비스와 상업극장의 보편화로 자연스럽게 광주극장을 찾는 발걸음이 줄어들며, 광주극장은 독립·단편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으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고질적인 자금난을 겪으면서 영화진흥위원회와 광주광역시의 사업 보조금, 그리고 광주극장 후원회원의 후원금으로 버티고 있으나 여의찮은 실정.

모금액은 노후화된 영사기 교체 및 냉난방 시스템 점검, 좌석 일부교체와 극장건물 누수 방지에 쓰인다. 또 5억 원 예산은 광주극장과 연계한 인문투어를 추진하고 아카이브관 제작, 시민과 함께하는 영화그림 간판학교 운영 등에 활용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오월 광주 현재와 미래…문화담론지 ‘창’ 가을호 나와

광주 오월의 현재와 미래의 길은 무엇일까. 오월 광주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하 재단)의 문화담론지 ‘창’(가을호·통권62호·사진)가 특집 기획으로 ‘오월! 현주소,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다뤘다.

특집기획에서는 ‘오월! 현주소,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다섯 전문가의 제언을 게재했다. ‘오월! 제대로 가고 있나’(노영기 조선대 교수),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 무엇이 문제인가’(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 ‘5·18교육,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백성동 광주극락초등학교 교사), ‘시끄럽고 끈질긴 소통으로 만들어 갈 미래의 5·18’(김꽃비 청년문화허브 운영위원), ‘시민참여 공론화 ‘ 오월! 길을 묻고 답을 구하다’(정다은 광주시의원) 등이다.

이번 호는 오형근 재단 후원회장의 ‘지역문화의 소멸과 생존’으로 창을 열었다. 문화인 인터뷰에서는 성진기 전남대 명예교수를 만나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청년문화인에서는 강연의 길을 걷게 된 김경한 이야기브릿지 대표의 이야기를 들었다.

연재코너에서는 김상윤 고문이 ‘텡그리와 부르한3’, 신웅주 전남대 교수의 ‘사라질 위기에 놓인 건축유산’을 진단했다. 박종찬 광주대 교수는 ‘광주관광공사의 방향과 과제’를 제언했다. 아울러 리뷰&프리뷰에서는 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소개되며, 문화톡에서는 김정희 시인의 스위스 여행기가 소개된다. 김옥열의 포토에세이 ‘생선이 기가막혀’도 눈길을 끈다.

이기훈 재단 상임 이사는 “지난 2005년 창간된 문화담론지 ‘창’은 다양한 세대의 시각과 다채로운 이야기로 지면을 채워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화전문매체로서 지역 문화소통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